

## 한·카자흐 정상회담 “원자력 전면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청와대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원자력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세계 6위 우리나라 소비국인 한국과 세계 2위 우리나라 광 보유국이자 한국의 최대 원자력 도입국인 카자흐스탄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 국영기업 간 원자력 분야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나라 공동개발, 한국형 중소형원자로(SMART) 공동연구 분야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현재 추진 중인 발하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잠빌 해상광구 공동탐사 등 전략적 사업의 성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고 국영석유회사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자원개발 분야의 협력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공동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뒤 이를 위해 정상 간 수



시 회동을 비롯한 정부·의회·재계 등 각계 고위인사 간 교류와 협력채널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형원전, 터키진출 사전작업 ‘착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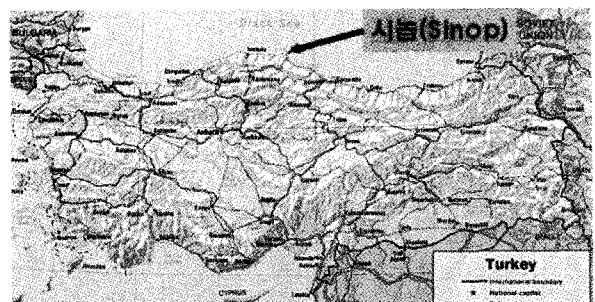
• 한전, '터키 시놉원전 공동연구 제2차 TF회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터키 진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순풍을 타고 있다.

한전은 지난 4월 26일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메틴 길지 터키 에너지부(MENR) 차관 등 터키 정부 및 원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터키 시놉원전 공동연구 제2차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초 터키 시놉 지역에 한국형 원전(APR1400) 도입 가능성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한전-터키 국영발전회사(EUAS)간 체결된 공동선언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1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착수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실무회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길지 차관의 예방을 받고 원전 협력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터키 대표단은 원전 산업계를 방문해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놉원전 사업의 공동연구를 위해 주기적인 회의 및 상호 협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 '전기차 네트워크' 발족



서울시는 지난 4월 21일 전기차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전기차 관련 제작업체, 학계, 연구기관이 총망라된 협력 네트워크를 발족시켰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생산 부품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충전시설 관련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여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관련 업체 및 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한국전력공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LS산전, 교통안전공단 등 전기차 관련기관 19곳이 참여하는 '전기차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비·연구 등 분야별로 필요한 2171명을 충원한다.

또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내년에 뽑기로 돼 있는 인력 가운데 일부인 75명을 앞당겨 뽑기로 했다. 기관 내에서 원자력 관련 부서로 기존 정원을 재배치하는 637명을 빼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609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요르단 연구용 원전 수출, 국내 원자력 비중 확대 등에 따라 2020년까지 이들 공공기관에 1만 명 수준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원자력 호황이 이공계 취업 시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	총원	재배치	순증
한국전력공사	67		67
한국수력원자력	971	366	605
한국전력기술	436	154	282
한전KPS	564	101	463
한전원자력연료	123	16	107
한국원자력연구원	19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2		5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4		14
합계	2,246	637	1,609

## 원전 수출, 새 일자리 1609개 만들었다

• 관련 8개 공공기관... 2020년까지 1만명 더 필요할 듯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원자력 관련 8개 공공기관에서 2246명의 인력을 충원(재배치 포함)한다.

이들 8개 기관은 조직 진단을 거쳐 원전 건설·설계·

## 교과부, 원자력안전백서 발간

• "원자력 안전·규제 국민 이해를 높일 것"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4월 19일 지난해 추진한 정부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과 안전정보 전반을 담은 '2010년도 원자력안전백서'를 발간했다.

원자력안전백서는 ▶특집 ▶원자력안전 총론 ▶원자력 시설 안전 ▶방사선시설 안전 ▶환경방시능 감시 ▶방사능 방재·방호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및 기반구축 등 본

문 8편과 자료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백서에는 특집 및 방사능 방재·방호편을 새로 수록했다.

원자력안전백서는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www.kins.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 “녹색성장 성패는 에너지 기술에 달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타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에너지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녹색시장을 여는 에너지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2010 에너지 R&BD 리더스 포럼'에는 타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 세계 주요국 에너지R&D 전담기관 및 녹색 선도기업 고위인사가 모여 에너지기술 혁신 및 R&BD 정책을 비교 토론하였다.



## 서남권 해안선 '풍력발전벨트' 탄력

전북 군산과 전남 영광·신안 등을 잇는 서남부 해안선 일대가 풍력발전 설비 및 생산시설이 밀집한 신재생에너지 벨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국회를 통과, 2012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력생산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5GW급 풍력 프로젝트를 위해 37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전력 생산 업체들의 참여 문이도 잇따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영광·무안·신안·해남 등에 풍력 설비단지화 발전 단지를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사업이다.

서남권 해안선 일대가 풍력발전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풍력발전의 경제성을 담보하는 평균풍속 때문이다. 해상의 경우 평균 풍속이 최소한 초당 6.5m 이상이 돼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전국 주요 풍력자원 현황에 따르면 전남 서남권이 평균 7.0~7.5m에 달해 여건이 가장 양호하다. KEA

